



세계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통우연의 건승을 빌며

신 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회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WTO 출범에 따라 국경없는 단일경제권으로 더욱 가속화되면서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환경 변화속에 선진각국은 국제화, 개방화에 총력을 경주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 조류에 뒤쳐지지 않기 위하여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아·태지역을 하나로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이를 위한 기술협력, 정보통신망의 확충, 정보의 원활한 유통등을 위한 APEC 회원국간 정보통신 협력체계인 아·태지역 정보통신기반구축(APII)을 제안하는 등 각 분야에서 도약의 깃발을 높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경쟁체제와 환경변화를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의 계기로 삼아 합심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통우연이 발족된 이래 그동안 많은 정책, 학술이론의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정책과 기술 이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선진 기술이론의 국내도입과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정보와 자료가 부족한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관련 분야의 정보와 학술이론 분야를 묶어 통우연에서 회자로 발간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음은 관계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며, 이번 호에는 위성정책 주제의 특집으로 정부의 취지와 추진계획을 소개할 수 있는 지면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관련 분야의 발전을 염원하시는 통우연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회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박 영 일